

제 41 호

연중제 23 주일
(강림 후 13)

1973. 9. 9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강 료】

새신을 위한 용기 III

〈순정이 제 26,35호 계속〉

김 종 택 신부



교회의 생활 양식과 법률과 사목방침 등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변화가 있다. 마치 교회를 견고한 가구가 붙어있는 아파트로 보아서 변동되는 것은 갈려 드는 사람뿐인 것처럼 동일시(同一視)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역사(歷史)중에 살고 있고, 산 역사를 가지는 고로 계속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변화중에도 교회에 불변의 본질이 있다. 이는 곧 교회의 선교(宣敎)와 예배(禮拜)와 생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공동체적 힘존이다. 이에서 교회에는 자기를 개혁 세신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용감히 세신할 의무가 있다. 이에서 교회는 처음으로 교회 자체의 고유한 영원의 가치를 항상 더욱 강화 흡수하여 나가는 것이다.

금일과 같은 세계의 상황 속에서는 교회의 변혁을 방지 방해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각신자들도 교회의 세신을 위해서는 교회의 용기와 인내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회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지난 시대와 마찬가지로 단조롭게 반복하는 메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도 앞에 신자들도 크게 기뻐할 일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법규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제정한 법규를 변경하고 금일의 새로운 상황에 합치하도록 지금까지 익숙해져 온 것이다.

옛부터의 전통과 습관을 버리도록 요구해도 각 신자는 관대하게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새로우니까 바르고 좋은 것, 혹은 반대로 새로우니까 틀렸고 나쁜 것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해 버려서는 안되겠다. 만일 참된 신자로 살아간다면 새로운 진리라는 것은 실은 옛 진리의 재생(再生)이라고 생각하고 가톨릭교를 더욱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주위의 세계와 용감히 대화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또한 그때에도 그리스관으로써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진비에 차있어 지금까지 자기가 획득한 진리도 보다 풍부한 전체적인 진리의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서 참으로 존재를 계속 시킬수 있는 것만이 살아 있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들 중에 남은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경험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이다. 교회에서 영속하는 것을 얻으려면 교회의 세신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 교회를 세신시켜 가는 분은 곧 성령(성신)이다. 성신은 교회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해지도록 촉진시켜서 '교회를 속에서부터 살려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역진성당 주임신부)

이주일의 미사

□ **입당송** 주여, 당신은 의로우시고, 그 판단하심도 바르시나이다. 어지신 그대로 당신 종을 다루소서.

□ **제1독서** (이사 35 ; 4-7, 경향잡지 9월호 P. 39)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병어리의 입이 열리리라.

□ **충계송** ◎내 영혼아 야훼님 찬양하라.
당신은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고 사로잡힌 이를 풀어주시도다. ◎

□ **제2독서** (야고버 2 ; 1-5, 성서 P. 522)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병을 다 고쳐주셨도다. 알렐루야.

□ **복음** (마르코 7 ; 31-37, 성서, P. 92)
예수님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셨다.

□ 신자들의 기도

1. 우리를 기르시는 주여, 당신의 자애로우신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풍요로운 결실을 얻게 되었나이다. 섭리하시는 당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우리를 창조하신 이여, 우리의 선조들은 조상들에 대한 효경의 정이 컸었나이다. 우리도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

3. 모든 이의 위로자이신 주여, 중추절에 바치는 위령 미사에 아무도 기억해줄 이 없는 영혼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더욱 위로해 주소서. ◎

+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이 당신의 사랑을 느낄수 있는 행동이 우리 안에서 항상 솟게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영성체술**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이 주간의 성경

- 10 (월) 독서 (골로 사이 1 ; 24-23 성서 P.456)
복음 (루 가 6 ; 6-11. 성서 P.138)
- 11 (화) ※ 위령의 날 (추석)
독서 (골로 사이 2 ; 6-15. 성서 P.458)
복음 (루 가 6 ; 20-26. 성서 P.138)
- 12 (수) 독서 (골로 사이 3 ; 1-11. 성서 P.460)
복음 (루 가 6 ; 20-26. 성서 P.139)
- 13 (목) 독서 (골로 사이 3, 12-17. 성서 P.460)
복음 (루 가 6 ; 27-38. 성서 P.139)
- 14 (금) ※ 성 집사가 광영 축일
독서 (필 립 2 ; 6-11. 성서 P.450)
복음 (요 한 3 ; 13-17. 성서 P.207)
- 15 (토) 독서 (디모테오전서 1 ; 15-17 성서 P.476)
복음 (루 가 6 ; 43-49. 성서 P.141)

□대화의 광장□

□잔디밭□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

김 영 구 신부

우리는 해마다 9월이 돌아오면 우리 한국신자들의 마음 속에 기쁨이 용솟음치는 치명 선렬들의 침례를 지냅니다. 이 침례는 한국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뜻 깊고 경사로운 날입니다. 로마 베드로 대 성전에서 시복식이 거행되는 때에 우리 한국 치명자 105위 상본 앞에는 수만 외국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 성부와 함께 경건히 무릎을 꿇고 그 빛나는 용덕을 흠모하면서 “복자 노렌조와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치명자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하고 빌었던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치명 선조를 모시게 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에게 커다란 영광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고 견고해진 성교회는 가는 곳마다 다시 새로운 피로 건설되고 새로운 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고 자라는 곳마다 열선여길을 당하였으나 순교자들의 붉은 피로 다시 생기를 얻었고 순교자들의 맑은 피를 거름삼아 힘차게 자랐습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은 세계에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다른 뛰어난 조상 순교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실천하다가 제발로 멀리 북경까지 걸어가서 영세 입교 하였던 것입니다. 귀국한 후에도 성직자 없이 평신도들끼리 진리의 나라 확장사업에 전력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 얻은 진리를 가슴에 품고 목자의 혜택도 별로 받지 못하면서 한번 깨달은 진리에 충실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선조 순교자들의 장한 모습…!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정든 교향을 버리고 사랑하는 일가 친척까지 이별하고 생계를 찾아 기다리는 이 없는 곳으로 머리를 두르고 떠났던 선조들의 후손입니다. 불행히도 포졸들에게 붙들리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같이 아무 말없이 가서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던 선조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순교자들의 후손이라면, 그들의 신앙과 열심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을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① 성직자 한 분도 모시지 못한 우리 순교 선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전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② 우리 치명 선조들은 성직자에 대한 충성이 지극했습니다.

성직자를 모시기에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모신 후에는 무서운 박해시절에도 그들을 자기 집에, 할 수 없는 때에는 나무가리 속에다 3년이란 긴 세월이 부모의 눈을 피해 가면서 까지 신부를 보호하며 이 땅에 교회를 보존했던 것입니다.

③ 치명 복자들의 그 빛나는 굳은 신앙과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후손다운 소행입니다.

<전주시 교동 1가132-4>

전주전신전화국 앞

제과 @5011 찻집 @5013

개업

프 랑 스 제 과
* 임 금 님 찻 집 *

*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 원 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 남 샐 프 { T V
냉 장 고
석 유 스토브

전주 극장 동편입구

전 화 @8121

여 요 셉(운창)

□ 학생논단 □



역사의 창조

김정호

우리들의 관념에 의하면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로 구성된다. 지나간 시간이 과거요, 지금 이 순간이 현재요, 앞으로 다가올 꿈의 세계가 미래이다

노인은 과거를 회상하고 청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벅차다. 그러나 그들은 다같이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실존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 순간에 그들과 그 주위의 인간을 위해서 행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의 행위는 실천을 의미한다.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천을 의미한다. 현실은 판단되어야 한다. 이 판단의 과정에는 사고(思考)가 있어야 한다. 냉정한 현실과 엄격한 우주질서에 바탕을 둔 사고가 있어야 한다.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사상(思想)이다. 인생에 대한 일관된 태도, 대자연과 초인간적 능력에 대한 감지(感知), 이것이 사상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상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이어야 한다. 인간성을 떠난 사상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신과 인간과의 관계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다시 자연과 신의 위치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자연·신>삼자의 종합적인 면에서 살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행동, 실천, 사고, 사상은 모두 과거에 기초를 둔 것이며, 현재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며, 미래에도 계속 영위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따져보라. 현재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내가 글을 쓰는 이 순간은 현재 이지만, 이 글의 첫자를 썼던 시각은 벌써 과거이고, 이글이 지면을 통해 발표되어 질시각은 미래이다.

그러면 정말 현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현재는 존재한다. 존재할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지배한다. 과거는 과거이되 현재라는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지나간 것이 과거요, 미래는 미래이되 그것은 현재라는 파물에 의해 자꾸 잡아먹히는 미래인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란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소중하고 영원한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다행히 우리는 젊다. 미래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인 것이다. 미래를 가진다는 것은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순간 한순간 현재를 정말 사는것 같이 산다면, 누구에게 내놓아도, 하늘에 펼쳐도 부끄럽지 않을 역사를 가질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충실히 자기의 현재를 행동하고, 실천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사상을 익혀 간다면 자기 나름의 역사를 가질수 있는 것이다.

벗들이여! 이순간에. 우리에게, 젊음이 주어져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자.
(전주 고등학교 학생)

요심이 (8) 김병오

이 옷과 시계를 아빠가 주석 선물로 사주었다	부럽구나
마리아와 만날 약속시간이 되었구나	으시대는구나 - 좋은수가 있다
택시, 저 여학생 옆에 세워주소	
자가용차도 있었구나..	우리 자가용인데 같이 타고가자

더위에 건강 하십시오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②3498)

- 9월12일(수) - 외국 문화교실 (독어) P.M 5시 6시
- 14일(금) - 외국 문화교실 (독어) P.M 5시 6시
- 14일(금) - 지성인 교리(교회상식과 교리를 알고 싶어하는 신자들에게) P.M 8시

각종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냉방 시설 완비

미미 제과소

전화 ② 6589
(미미사장 ②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김민주 (가타리나)

급고찾집, 경쾌한음악, 냉온방시설

(신장개업)

새로운

남문다실

남문여관 지하실 직통 ② 4881
교환 ② 2169 5017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중추절 위령미사**-추석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바치는 위령미사에 많이 참여 합시다. 오전 9시 반에는 신 공동묘지 축성과 사도 예절이 주교님 집전으로 베풀어집니다.
2. **교회 묘지 소식**-위령의 날(추석절)을 맞이하여 교회 묘지의 별초를, 관리 위원회에서 공동 작업 시켰습니다. 교회 묘지의 확장과 관리운영을 위해 성묘당일 현장에 성금함을 마련할까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3. **전주 지구 학생회 임원회** (오늘 오후 2시, 가톨릭센터)
4. **비둘기 썰 공개** (다음주일 오후 3시, 가톨릭센터)관심있는 학생회 임원과 썰임원 그리고 많은 회원들의 참관을 바랍니다.

(소) (식)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중순

1.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2. **위령미사 봉헌** 위령의 날을 맞아 당일 오전6시에 합동위령 미사를 봉헌하오니 미사에물을 10일(내일)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일학교 개학** 지난주 토요일 (어제)부터 주일학교를 개학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의 열성을 바랍니다.
4. **토요일 미사시간 변경** 주일학교 개학에 따라 토요일 특전 미사시간을 오후 5시로 변경 합니다.
5. **교무금 완납** 금년도 회계 년도가 9월로 끝납니다. 하느님 사업을위한 교회 유지를 위해 여러분이 가진 신입하신 교무금을 완납 합시다.

□ 지난 주일 봉헌금 33,846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추석날 오전 10시에 합동 위령미사** 전날까지 사무실에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15일 (토)에 영세식** 영세자와 대부대모는 15일 오후 6시 50분까지 오십시오.
 3. **9월은 복자 성월** 매일 저녁미사후 '복자 유해 안치소앞에서 공동기도를 바치오니 많이 나오시어 정성껏 기도합시다.
 4. **주일 봉헌금과 성미 모우기에 관심을 가지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총을 빌며, 자신과 가족들의 속죄를 비는 뜻으로 봉헌금과 성미를 바칩시다.
- 지난 주일 성마 2말 6되 (누계 189말6되)
지난 주일 봉헌금 11,07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10시미사후 경골놀이있음)
2.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3. **추석 합동 연미사** (저녁 8시미사)
4. **애령회 8월말 보고**
 - ① 7월말 잔액 468,191원
 - ② 이자수입 18,000원
 - ③ 가입금 500원, 이바오르; 용회

※타본당에서 이사온신 교우와 영세받으신 교우는 애령회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5. **본당 애령회**에서는 교우 침묵 속의 행사를 갖고자 하오니 교우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장소; 수리산 회비 1인 4,000원 분납 때; 1973. 10. 20. 출발. 21일 도착 (버스대절) 회비분납제; 1차 9월말까지 2,000원 2차 10월 14일까지 2,000원

희망하시는 교우는 애령회 총무에게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일 신축성미 7말 7되, 누계 60말7되
지난주일 봉헌금 13,51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학생P** (하늘의 문)회합 시간 주일9시로 변경 다음주일 치명자산 참배에 빠짐없이 참석바람.
 2. **추석날 밤8시 합동 위령미사**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감사보고가 있습니다.
 4. **9월은 73년도 마지막 달**
 - ① 14일까지 각 부서 예산 책정바람.
 - ② 다음 주일에 사도 회장·부회장선거.
 - ③ 23일에 예산 편성회 정·부회장 임명식
 - ④ 8월말까지의 교무금 납부 상황은 61.4%.
- 지난주일 봉헌금 5,68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추석날 아침 6시 선영을 위한 합동미사**
 2. **견진자 교리** (오늘공식미후, 밤미사후)
 3. **신자 기록부**는 9월 15일까지 제출바람
 4. **학생회 제1차 치명자산 순례** (공식 미사후)
 5. **8월말 재정보고** (적자 5,028원) 총수입 (96,238원)-총지출(101,266원) 적자에 허덕이는 본당 살림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가진 신입하신 교무금을 9월안으로 완납 합시다.
- 지난주일 봉헌금 8,806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사도회 정기총회** (7월15일 <토>오후2시)
 - ①현 사도회 임원과 ②각신심단체 간부 ③본당 신부님의 위촉을 받으신 분은 정시에 사재관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석날 새벽에 합동 위령미사** 복자님에게 미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3. **예비자 특별 교리** (12일밤8시부터) 복자측일 영세자를 위한 특별 교리입니다.
 4. **미사 시간 변경** (9월15일부터) 주일 오전 6시, 9시 (어린이미사), 10시 오후7시 평일 오전 6시(월, 화, 목, 금) 오후7시(수, 토)
 5. **중·고등 학생 교리** 금주부터 10시 미사후
 - ① 중학생-유치원 강당
 - ② 고등학생-유치원 2층 (6학년교실)
- 새전동을 위한 헌금, 감사합니다.
풍납동 은 총량 5,000원
□ 지난 주일 봉헌금 28,691원, 감사합니다.